

## 왜곡된 대학 성문화, 이제는 바로잡을 때

공 경 희 | 동의대 학보사 편집국장

### 대학의 왜곡된 성문화

힘든 고3 생활을 끝내고 들어온 대학. 나는 이 곳에서 이전까지 접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미처 적응할 틈도 없이 계속 받아들이기만 했던 이런 경험들은 처음이기에 많은 혼란으로 다가왔다.

입학식을 하기도 전에 갔던 예비 대학. 이 곳에서 동기들, 선배들과 친해지기 위해 가진 시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당혹스러웠다. 편을 나누어 가진 시합에서는 테이프를 입에서 입으로 옮기기, 작게 접은 신문지 위에 남녀가 함께 올라가기 등 조금 지나치다 싶은 게임들이 있었고, 밤늦은 시간까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후 남자, 여자가 아무렇게나 섞여 잤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줄곧 여중과 여고를 다녔던 나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선배들은 누구나 거리낌없이 행동했고, 즐거운 자리에서 당혹스러운 표시를 할 수는 없었다.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곳에 와서 처음으로 접하는 캠퍼스 문화일 것이다. 이 속에는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조금은 왜곡적인 성문화도 함께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계속되는 대학 생활 속에서 이런 성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고,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똑같은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만성된 성문화가 잘못된 양상으로 치달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성(性)이라 하면 부끄러운 것,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성과 관련된 지식들도 짐작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성과 관련된 생각들이 성립되는 중요한 시춘기 시절을 오직 공부만 죽어라 하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호기심을 포르노 테이프나 비현실적인 로맨스 소설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남녀 공학이 별로 없는 현실에서 이성들간에 아무런 접촉이 없다가 갑자기 맞이하는 대학 생활이 앞에서 내가 겪었던 것처럼 왜곡된 성문화만 보고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상황과 연결시키는 상관 관계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 사이에 술자리나 MT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심하게는 강간 등 성폭력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남학생들의 경우에 그 불감증의 강도가 심해 함께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어느 여학생의 말에 따르면 평소 동아리 선배로 알고 지내 오던 오빠에게 성희롱을 당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다. 알고 지내는 성격으로 보아서는 무슨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함께 있으면 손으로 허리를 감고 껴안으려 한다든가, 손을 잡고 계

속해서 매만지려 한다. 자기가 당황하면 오히려 이 상해할까봐 화를 내지 못하고, 그 때마다 장난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뿌리쳤지만 계속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잘못된 캠퍼스 성문화로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오히려 성폭력, 성추행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성폭력 추방을 위한 성폭력 학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여학생 위원회에 피해 사례 고발 전화를 마련하는 등 그 피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도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일부 교양 수업으로 성(性)과 관련된 것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이전에 들었던 성교육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잘못된 대학의 성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들의 행동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지 꼬집어 줄 수 있는 생활화과 관련된 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의 자세이다. 캠퍼스 성문화의 주체인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대학의 성문화가 바른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 올바른 성문화


물론 대학가에서 이런 나쁜 성문화의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직 일부이기는 하지만 몇몇 대학생들을 선두로 하여 올바른 성문화 정립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선보이고 있어 희망이 엿보인다.

여성의 성 상품화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에 반하는 '안티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로 건강한 성문화를 세우기 위한 노력, 누드 퍼포먼스 등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성문화 축제, 캠퍼스마다 늘어나고 있는 성관련 강의와 이를 듣기 위해 모여드는 학생들의 모습. 이 모두가 대학 안에서 올바른 성문화의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한다.

또한 최근 들어 대학 내에서만이 아니라 '구성애의 아우성', '아름다운 성' 등 일부 TV 프로그램에서도 '성에 대해 바로 알기'를 큰 주제로 청소년들의 성, 노인들의 성, 피임법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이들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호응도 매우 긍정적이어서 더욱 반가움이 크다.

## 앞으로의 모습

대학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젊은 패기와 지식, 도전 정신을 가진 대학 사회는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올바른 일에는 앞장 서고, 나쁜 일은 먼저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성문화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 동안 숨겨져 왔던 잘못된 캠퍼스 성문화가 '캠퍼스 내 성폭력'이라는, 인상을 찌푸리는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학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알았다면 이를 없애고, 오늘날 사회에서 올바른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는 성문화 바로잡기에 또다시 그 패기와 열정으로 앞장서는 대학 사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공경희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며, 동의대 학보사 편집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